

☎140-721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37/전송(02)796-4487
[정책국] 정책국장 최윤배[6530] 정책팀장 박우민[6532] 팀원 이병인[6537]/E-mail: bo33jo@nate.com

문서번호 대의협 0676-03098

시행일자 2017. 7. 6.

수 신 수신처참조

참 조

제 목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 출강 의사회원 현황파악 요청

1. 귀 회(대학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최근 한방의 의과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의료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, 이를 관리·감독해야 할 정부에서도 한의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한방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방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3. 한의계에서는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사대상 연수강좌를 통해 현대의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의과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자신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, 오히려 의사 회원들이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여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
4. 이에 우리협회는 한의사의 불법 의료기기 및 의약품사용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, 그 일환으로 먼저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 회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, 다음과 같이 귀 회(대학) 소속 회원(교수)의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 출강현황을 파악하시어 회신을 부탁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회신양식

소속 및 직책	전문과목	성명	출강대학 or 강좌 주최기관	강좌명	강의일자 or 강의기간

나. 회신기한 : 2017. 7. 19.

다. 회신처 : 대한의사협회 정책팀(bo33jo@nate.com)

- *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(2017. 4. 23.) 의결에 따라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 현황을 파악키로 한바, 귀 회(대학)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합니다”



(수신처)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학회장, 각의대·의전원학장